

# 사회적 범주화, 가치 선호 및 내집단 편애

아해경 · 이수원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사회적 범주화에서 내집단 편애가 유발되는 원인을 밝히려 하였다. 연구의 가정은 사람들이 내집단에 동일시하게 되면 그 집단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판단준거로 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평가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내집단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입각해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집단을 선호하고 외집단을 배척하는 내집단 편애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이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피험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범주화, 탈범주화 및 재범주화 처치를 가하였다. 범주화 조건은 성범주를 특출하게 하여 남녀 성범주에 자신의 정체를 동일시하도록 처치한 조건이다. 이 조건에서는 내집단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판단준거로 삼아 내외집단을 평가하기 때문에 내집단 편애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반면에 남녀범주를 하나의 단일집단으로 묶어 범주경계를 재설정한 재범주화 조건이나, 범주경계를 해체하여 개인화시킨 탈범주화 조건에서는 남녀범주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내집단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내외집단을 판단하는 준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 조건에서는 내집단 편애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연구결과 이 예언들이 모두 지지되었다.

집단간 행동에서 사람들은 외집단보다 내집단을 호의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 또는 내집단 편파(ingroup bias)라고 부른다. 내집단 편애 현상은 인상평가(Gerard과 Hoyt, 1974), 원인 귀인(Pettigrew, 1979; Taylor과 Jaeggi, 1974) 및 보상분배(Tajfel, 1970)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내집단 편애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그동안 다각적으로 설명이 시도되었다. 이에 대한 가장 초기의 설명은 자만족우월주의(ethnocentrism)에 대한 Sumner(1906)의 개념화에서 나타난다. 그는 내집단 편애가 집단내의 응집력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내집단 편애는 집단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것이다. 그러나 이 생각은 내집단 편애의 원인을 기능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서 내집단 편애가 일어나는 과정이나 기제를 설명한 것은 아니다.

내집단 편애가 일어나는 과정이나 기제를 설명하려는 접근들은 최근에 와서야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Brewer, 1979; Tajfel, 1982). 이런 접근들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번째 접근은 내집단 편애를 범주화(categorization)행동의 부산물로 보는 견해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내집단 편애는 사회적 자극에 대한 범주화 과정에서 사람들이 범주내 구성원들간의 유사성과 범주간 구성원들간의 차이점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지각하기 때문에 유발된다고 보았다(Tajfel, 1969; Doise, 1978; Wilder, 1986). 사람들은 범주내 구성원들의 유사성 보다는 범주내 구성원들의 유사성을 과장해서 지각할 때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호감이 증가하게 되며, 이와 대조적으로 범주내 구성원들의 차이점 보다는 범주간 구성원들의 차이점을 과장해서 지각할 때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내집단 편애는 내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유사성 지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내집단에 대한 호감과 외집단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구성원들에 대한 유사성의 지각을 통해서만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 접근은 내집단 편애를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로 설명하려는 견해이다. Mullen(1987)은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주의집중의 차이가 내집단 편애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의 크기를 작게 지각하기 때문에 내집단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내집단 편애는 이런 주의집중의 과정을 통해서 평가적 반응이 과장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았다.

한편 Howard와 Rothbart(1980)는 내집단에 관한 부정적 정보는 외집단에 관한 부정적 정보보다 더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Schaller와 Maass(1989)도 집단 구성원은 비구성원에 비해서 집단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히 집단 구성원들을 내집단 구성원에 관한 긍정적 정보 보다 부정적 정보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런 행위가 내집단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정보를 왜곡시킴으로써, 내집단에 대한 인상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하였다. 즉 사람들은 내집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유지하기 위해 동기적 추론(motivated reasoning)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에서 동기적 추론의 원천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은 내집단 편애의 원인에 대한 세번째 접근인 사회적 정체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서 제시되었다. 사회적 정체 이론(Tajfel과 Turner, 1986)에서는 긍정적인 자존감(self-esteem)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가 내집단 편애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내집단과 외집단의 비교 과정에서 내집단의 상대적 지위를 높게 지각함으로써 그 집단과 동일시된 자신의 자존감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내집단 편애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 개인의 자존감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특히 외집단과의 사회적 비교에서 내집단을 보다 호의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자존감의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가정하였다. 사회적 정체 이론에서 도출되는 이와같은 가정들은 그동안 다각적으로 검증되었다(Brown, Collins 및 Schmidt, 1988; Crocker와 Luhtanen, 1990; Lemyre와 Smith, 1985).

그러나 한편 사회적 정체이론의 기본 명제에 반하는 연구결과들도 나타났다. Mullen, Brown 및 Smith(1992)는 내집단 편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집단간 편파에 관한 137개의 연구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존감 고양 가설의 기본가정이 입증되지 못하였다. 자존감 고양 가설에서는 내집단 편애의 원인이 내집단의 지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내집단의 지위가 낮을수록 내집단 편애는 커져야 한다. 왜냐하면 내집단의 지위를 높힘으로서 자존감을 높힐 수 있기 때문이다(Brewer, 1979).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결과들은 일관성이 없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은 내집단 편애와 개인의 자존감을 관련시킨 연구들에서도 나타났다. 이 이론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내집단 편애가 자존감을 높여려는 욕구에 의해 동기화되는 것이라면, 개인의 자존감이 낮거나 위협받을 때 내집단 편애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들은 또한 내집단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s, 1981). 따라서 개인의 자존감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정체에 갖는 중요성은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Abrams와 Hoggs(1988)도 사회적 정체 이론의 자존감 고양 가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들은 특히 자존감 개념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지적하였다. 자존감은 그것을 측정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자존감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명료하지 않으며 검증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이와같은 개념을 토대로 내집단 편애를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 이론은 조작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이론이 못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들은 어떤 현상을 동기적 관점에서 설명할 때 갖게 되는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자존감 고양 가설과 같은 동기적 이론은 사람들이 내집단 편애를 하게 된 이유(reason) 즉,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내집단을 편애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준다. 그러나 내집단 편애가 유발되는 원인(cause) 즉, 내집단 편애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존감 고양 가설이 갖고 있는 동기적 관점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 편애가 일어나는 원인을 인지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 편애가 내집단 구성원과 외집단 구성원이 서로 다른 가치에 준거해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판단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으로 보았다. 개인의 '태도'는 그가 갖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Katz, Hass 및

Wachenhut(1986)는 미국의 백인들은 흑인에 대해 '청교도 윤리'와 '박애주의' 중 어느 가치에 준거해서 판단하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백인들이 흑인을 청교도 윤리에 준거해서 판단할 때에 흑인에 대해서 비호의적인 태도를 갖지만, 박애주의 정신에 준거해서 판단할 때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수원과 박영석(1988)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교복'에 대한 태도에서 발견하였다. 교복 지지자는 교복을 질서가치(질서없다-질서있다)에 준거해서 판단하는 반면에, 교복 반대자는 개성가치(개성없다-개성있다)에 준거해서 판단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교복 지지자에게 준거가 되었던 가치가 교복 반대자에게는 준거가 되지 못하였으며, 이와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태도가 대립되는 사람들 간에서는 그들의 태도 형성의 준거도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실은 이들 사이에 태도 대상을 바라보는 조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복 지지자는 '질서'가치에서, 교복 반대자는 '개성'가치에서 교복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질서'와 '개성'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조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들 가치에 입각해서 태도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교복 지지자들은 대개 선생님들이다. 이들은 학생을 통솔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질서'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교복 반대자는 대개 학생들이다. 이들은 신분에서 벗어나는 데 관심을 갖기 때문에 '개성'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선생과 학생은 모두 그들이 처해있는 입장에 따라 각자 자기들의 욕구를 실현시켜주는 가치를 준거로 삼아 교복을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선생'과 '학생'은 사회적 범주에서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관계에 있는 범주들이다. 어느 한쪽 범주가 내집단이 되면 다른쪽 범주는 자연히 외집단이 되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상호규정관계에 있는 범주들 간에서는 그들간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또는 기성세대와 신진세대간에는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다. 지배계급은 '자유'를 추구하는 반면에 피지배계급은 '평등'을 추구한다(이수원, 1993). 또한 기성세대는 '안정'을 추구하는 반면에 신진세대는 '성장'을 추구한다(Tetlock, 1989).

본 연구에서 주제로 다룬 성범주만해도 남성들은 '기능'가치를 선호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친화'가치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정진경, 1987). 따라서 남성들은 '기능'가치에 준거해서 즉, 얼마나 강인하고, 능동적이고, 자신감 있고, 대범한가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친화' 가치에 준거해서 즉, 얼마나 침착하고, 상냥하고, 협조적이고, 섬세한가에 따라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남성들은 자신들에게 내집단인 남자를 호의적으로, 그리고 외집단인 여자를 비호의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남자는 강인하고, 능동적이고, 자신감 있고, 대범한 반면에 여자는 연약하고, 자신감 없고, 수동적이고, 소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내집단인 여자를 호의적으로 그리고 외집단인 남자를 비호의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자는 침착하고, 상냥하고, 협조적이고, 섬세한 반면에 남자는 덜렁대고, 경쟁적이고, 무뚝뚝하고, 둔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범주에서 상호규정관계에 놓여있는 두 집단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때, 그리고 각 집단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입각해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판단할 때 내집단을 선호하고 외집단을 배척하는 내집단 편애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사회적 범주가 특출(salient)하게 되어 개인들이 자신의 정체를 특정한 집단에 동일시하면 할수록 심화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특정집단에 자신을 동일시하면 할수록 그 집단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삼기 때문에 그 가치에 입각해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판단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회적 범주가 특출하지 않게 되어 개인들이 자신의 정체를 '집단'과 동일시하지 않고 '개인'으로 동일시하게 되면 내집단 편애현상은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때는 개인들은 자신을 어떤 특성집단에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집단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그의 판단준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때는 남성과 여성의 양쪽 집단에서 추구하는 두개의 가치 즉, 남성집단에서 선호하는 '기능'가치와 여성집단에서 선호하는 '친화'가치를 동시에 갖고 판단에 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쪽 집단을 관찰할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런데 남여 양쪽 집단에서 추구하는 두개의 가치를 동시에 갖고 내외집단을 판단하는 경우와 한쪽 집단에서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만을 가지고 내외집단을 판단하는 경우에 판단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한쪽 가치에 준거해서 내외집단을 판단할 때는 그 판단이 양극적(bipolarity)으로 되는 반면에 양쪽 가치에 준거해서 판단할 때는 이원적(duality)으로 나타난다(이수원과 이영훈, 1989). 양극적 판단이란 남자에 대한 태도와 여자에 대한 태도를 동일한 하나의 준거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동일한 준거는 기능가치 또는 친화가치 중 어느 한 준거가 될 수 있다.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기능가치에 준거해서 판단하게 되면 남자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여자에 대해서는 비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친화가치에 준거해서 판단하게 되면 남녀에 대한 태도가 이와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하나의 동일한 가치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두 태도가 호오차원에서 양극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집단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외집단에 대해서는 비호의적인 내집단 편애가 나타나게 된다.

반면에 이원적 판단에서는 남자에 대한 태도와 여자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른 준거에 입각해서 결정된다. 남자에 대한 태도는 기능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반면에 여자에 대한 태도는 친화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개인내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태도가 동시에 호의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남자에 대한 태도와 여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준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남자에 대한 태도는 기능가치에서 그리고 여자에 대한 태도는 친화가치에서 결정된다면 두 태도 대상에 대한 태도가 모두 호의적일 수 있다. 이원적 판단에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준거가 다르기 때문에 두 태도가 서로 독립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원적 판단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각각 서로 다른 가치에 준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중에 특정대상을 더 선호하는 내집단 편애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내집단 편애는 개인의 태도구조가 양극적인 구조를 가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정을 검증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Gaertner, Mann, Murrell 및 Dovidio(1989)의 집단간 범주의 경계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도입하였다. 그들은 집단간 범주의 경계를 변화시키는 전략으로 재범주화와 탈범주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재범주화(recategorization)란 남자와 여자의 두 집단을 하나의 단일집단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말하며, 탈범주화(decategorization)란 남자와 여자의 두 집단을 해체시켜 개인화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이 두 전략은 범주화(categorization)에 비해 범주의 특출성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집단'에 동일시하기 보다는 '개인'에 동일시하도록 해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범주화 처치를 통해서 집단의식을 갖게 되면 자기가 속한 내집단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준거로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집단 편애가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면에 재범주화 또는 탈범주화 처치를 가하게 되면 그들의 집단의식이 개인의식으로 바뀌게 되어 내집단 편애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 방 법

### 피험자

한양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수강하는 대학생 168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피험자들은 남여 각각 4명씩 8명이 하나의 실험집단으로 구성된 후에 세가지 처치조건(범주화조건, 탈범주화조건, 재범주화조건)에 무선적으로 각각 56명씩 할당되었다.

### 독립변인 조작

독립변인의 조작은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첫째 단계는 모든 피험자들에게 성범주화 처치를 가한 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피험자들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범주화, 재범주화 및 탈범주화 처치를 가한 단계이다. 실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와 단계는 지시문에 의해 통제되었다.

### 성범주화 처치

남여 각각 4명씩 8명이 실험대기 장소에 모이면, 피험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집단의사 결정기술'을 알아 보려는 실험이라고 소개한 뒤, 앞으로 주어질 과제에 대해 조별토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먼저 피험자들은 남여 각각 4명씩 남자와 여자집단으로 성범주화가 이루어졌다. 즉 남자는 파란색 이름표(가, 나, 다, 라가 적힌 이름표)중에서, 여자는 주황색 이름표

(A, B, C, D가 적힌 이름표)중에서 하나를 선택, 가슴에 부착하도록 하여 남녀 조가 구성되었다. 조편성이 끝나면 대형칸막이에 의해 공간이 나뉘어진 실험실 양편에 있는 테이블에 자신의 명찰명과 같은 자리를 찾지 않게 하였다. 이어서 피험자들에게 토론주제인 '남여의 직업적 역할분배 문제'에 관한 두개의 상반된 입장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입장 1) 오늘날 아무리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있지만 신체적인 힘이 요구되는 직업에서는 남녀 평등이 있을 수 없다. 동물간에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듯이 인간들 간에도 유전적으로 결정지워진 특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발달심리학자의 보고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은 기본적인 유전 구조에서부터 출생 후 키, 몸무게의 성장 비율과 속도에서의 차이 뿐만 아니라, 지적발달과 신체적인 발달에서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욱 분명한 차이는 남녀간의 신체구조상의 차이이다. 남성은 여성을 대신하여 출산이나 육아를 할수 없으며, 여성은 남성처럼 힘든 물건을 옮길 만큼 강한 근육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과 남성은 두뇌반구의 특성상, 여성은 대부분 좌반구형이 많기 때문에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반면에 남성은 대부분 우반구형이 많기 때문에 과묵하며 수학적 능력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남성은 성격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은 감각적이고, 타인과 친화적인 반면, 남성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자기 주장적인 면이 강하다. 이런 특성들의 차이는 선천적인 특성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후천적으로 학습이나 훈련으로 선천적인 요소들 어느 정도 극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은 남여의 선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인 역할과 직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장 2)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들은 남성보다 항상 열등하고 무능력하다는 고정관념속에서 살아왔으며, 이런 고정관념이 여성의 사회진출의 기회를 박탈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여권 신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20세기 초반 해도 여성들은 너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까지 생각되었던 적이 있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여성들은 너무나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힘든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으며, 버스 운전사, 법률가, 의사, 회사 경영자 등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들은 정계-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 영국의 대처 수상 등-에서 뿐만 아니라 증권 분석가, 외과의사, 트럭 운전사, 소방수, 경찰관, 우주인...

등 예전에는 남성들의 전유물로 생각되었던 많은 분야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

남여 이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남여 이동간의 차이는 행동 수준에서의 미세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인지적, 도덕적, 성격특성에서의 성차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결론짓고 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여성들은 '유전적으로' 이것은 할 수 없고, 저것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결국 사회적 직업이나 역할에서의 남여의 차이를 주장한다면 스스로 바보임을 자인하는 것일 것이다. 남여의 기질적 차이는 후천적인 학습이나 훈련에 의해 충분히 극복되어 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여성의 진출을 막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시나리오를 읽은 뒤, 오늘날 사회적 잇수가 되고 있는, 남여가 서로 다른 직업이나 역할을 분배받게 된 이유(신체적인 구조차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남여의 능력차이, 여성의 주체성 부족, 사회제도상의 모순, 전통적인 인습)를 조별 토론을 거쳐 우선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조별 토론을 거쳐 결정된 우선순위는 시나리오와 함께 제시된 답안지에 적게 하였다. 이때 기존에 갖고 있던 남여의 집단정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조를 대표할 수 있는 조명을 지어 자신이 부착하고 있는 이름표와 답안지 상단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 범주화, 탈범주화, 재범주화 처치

앞에서 조별 토론을 거쳐 조별로 답안을 작성하고 나면, 조별과제 수행을 위해 설치되었던 칸막이를 제거하고 실험실내의 테이블과 좌석배치를 처치조건에 맞추어 조정한 후, 피험자들을 정해진 좌석에 옮겨 앉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와 단계는 각 처치조건별로 내용이 다른 지시문에 의해 통제되었고 처치조건(범주화, 재범주화 및 탈범주화)에 따라 각각 상이한 처치가 가해졌다. 범주화조건에서는 성범주의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처치한 반면, 재범주화조건에서는 남여집단 구성원 8명이 한개의 단일집단으로 묶어 범주경계를 재설정된 재범주화 처치가 이루어졌으며, 탈범주화조건에서는 범주경계를 해체하여 개인화시킨 탈범주화 처치가 이루어졌다. 이런 처치 조작을 위하여 선행연구(Gaertner 등, 1989)에 따라 집단구성원들의 상호작용시 세가지 유형의 실험조작(집단 표상, 집단정체감, 상호의존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첫째, 처치조건별 집단구성원의 표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좌석배치를 상이하게 조작하였다. 범주화 조건에서는 남여 성범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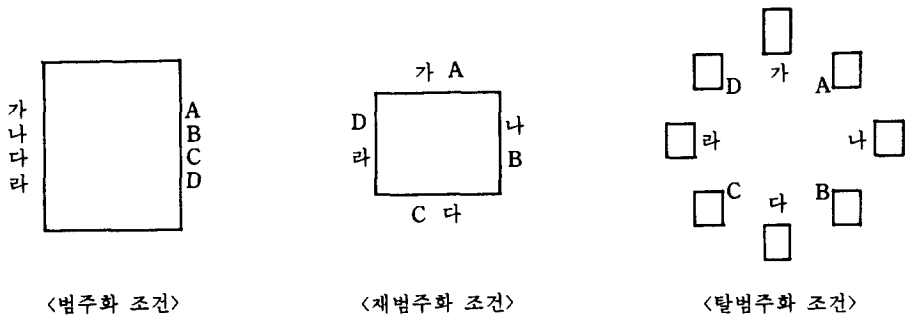


그림 1. 처치조건별 좌석배치 형태(가, 나, 다, 라는 여자구성원을 나타내며, A, B, C, D는 남자구성원을 나타냄)

경계가 특출하도록 자리를 배치한 반면에 재범주화 조건에서는 성범주가 특출하지 않도록 남여집단 구성원 8명이 골고루 섞이도록 자리를 배치하였다. 탈범주화 조건에서는 범주경계를 해체하기 위해 개별책상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게 하였다.

둘째, 자리배치가 끝나면 조별로 결정된 순위를 각 처치조건에 따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집단정체감을 변화시키기 위해 범주화 조건에서는 앞에서 결정한 조명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재범주화 조건에서는 앞에서 정했던 조명을 버리고 8명을 대표할 수 있는 조명을 새로 지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탈범주화 조건에서는 각 피험자들에게 성범주화 단계에서 지었던 조명 대신에 개인을 대표할 수 있는 별명을 지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결정된 조명과 별명은 피험자들이 부착하고 있는 명찰에 적게 하였다. 또한 문제해결책을 제안하는데 있어서도 범주화 조건에서는 앞 단계에서 조별로 결정한 순위를 조명과 함께 상대집단에게 발표하게 한 반면, 재범주화 조건에서는 앞 단계에서 결정한 조별 순위를 8명이 다시 토론, 합의하여 단일한 답안을 제시하게 하였으며, 탈범주화 조건에서는 조별로 결정한 순위를 개인별로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개인별 결정 순위를 별명과 함께 다른 7명에게 발표하도록 하였다.

셋째, 처치조건별로 참여자들간의 상호의존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범주화 조건에서는 실험에 참여한 4인 집단들 중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집단일수록(A-D까지의 학점중) 높은 학점카드를 받게 된다고 하여(동일한 점수의 4장) 두 집단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였다. 반면 재범주화 조건에서는 집단해결책이 다른 8인 집단보다 효과적일수록 A-D까지의 학점 중 높은 학점카드

(동일한 점수의 8장)를 지급한다고 하여 집단구성원들이 서로 협조하도록 하였다. 탈개인화 조건에서는 개인별 문제해결책이 다른 개인보다 효과적일수록 높은 학점카드(각기 다른 8장)를 지급한다고 하여 집단구성원을 개별화시켰다.

**종속변인 측정**  
**독립변인 조작검증**

최종단계에서 8명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피험자들이 어떤 개념적 표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8명이 같은 주제의 과제를 풀면서 하나의 집단 또는 두 집단, 또는 별개의 개인들의 집합이라고 확인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의 집단, 두 집단, 그리고 별개의 개인들의 집합이라고 느꼈다’라는 진술 각각에 대해 피험자들이 얼마나 확인하는지를 7점 척도상(1점: 전혀 확신하지 못한다-7점: 매우 확신한다)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남여집단 구성원의 상호인상평가**  
**호오도 판단**

호오도 판단은 남여집단 구성원에 대한 태도와 내집단 편애량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피험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포함하여 과제에 참여했던 8명의 남여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호오감을 상호평정하도록 하였다. 평정은 8명의 전체 구성원들 각각에 대하여 7점 척도(1점: 매우 싫다-7점: 매우 좋다)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남녀집단 구성원에 대한 태도: 자신을 포함하여 과제 수행에 참여했던 8명의 집단구성원 중 남자 4명과 여자 4명에 대한 호오도 평가의 평균값을 각각 산출하여 남자와 여자에 대한 태도로 삼았다.

**내집단 편애량**: 내집단 편애량은 위에서 제시한 남자와 여자집단 구성원에 대한 태도점수를 가지고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태도점수에서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태도점수를 뺀 점수로 하였다. 즉, 처치조건별로 남자의 내집단 편애량은 한 남자구성원이 자신을 포함한 4명의 남자집단(내집단) 구성원들을 평가한 평균점수에서 여자집단(외집단) 구성원들을 평가한 평균점수를 뺀 것이다. 여자의 내집단 편애량은 한 여자구성원이 여자집단(내집단) 구성원들을 평가한 평균점수에서 남자집단(외집단) 구성원들을 평가한 평균점수를 뺀 점수로 내집단 편애량을 산출하였다.

**인상평가**

전체 8인의 남녀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인상평가는 정진경(1987)이 남성특성과 여성특성으로 추출한 두 요인, 즉 기능성(agency)과 친화성(communion)가치에 따라 이들을 대표하는 신념들로 구성된 척도들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이 척도는 기능성 차원과 친화성 차원에서 각각 5개씩, 모두 10개의 의미분척도 구성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기능성 차원에 해당하는 신념으로는 '독립적이다-의존적이다, 능동적이다-수동적이다, 강인하다-연약하다, 대범하다-소심하다, 자신감 있다-자신감 없다'였다. 친화성 차원에 해당하는 신념문항은 '침착하다-덜렁댄다, 친화적이다-경쟁적이다, 상냥하다-무뚝뚝하다, 섬세하다-둔하다, 깔끔하다-지저분하다'였다.

이들 10개의 의미분척도를 피험자들에게 제시하고 자신을 포함한 8명의 남녀집단 구성원에 대한 인상을 각각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정은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7점: 매우 그렇다)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평정순서는 피험자간에 서로 무선적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들 인상 평정점수를 기초로 피험자들의 준거차원 변별값과 준거가치 다원성 값을 산출하였다.

**준거차원 변별값**: 피험자들이 남녀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인상을 어떤 준거에서 판단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상평가 점수를 기초로 기능성 및 친화성 가치차원에서 변별값을 산출하였다.

그림 2에서 y는 남자집단 구성원들과 여자집단 구성원들의 인상이 남성의 대표적 특성인 기능성 차원에서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x는 여성의 대표적 특성인 친화성 차원에서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각 가치 차원에서의 변별값이 클수록 각 가치차원에 입각해서 남자 혹은 여자집단 구성원의 인상을 판단하는 것이다. 준거차원 변별값의 계산은 이수원과 박영석(1988)의 방법을 따랐다.

**준거가치 다원성**: 피험자들이 남자와 여자집단 구성원에 대한 인상을 한쪽 준거차원(단일준거가치)만을 사용해서 변별하는지 또는 양쪽 준거차원(다원준거가치)을 동시에 사용해서 변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준거가치다원성을 분석하였다. 이 다원성 값은 준거차원 변별값에서 기능성차원의 변별값(y)과 친화성 차원의 변별값(x)을 각각 Z점수로 환적하여 이 두 값을 교적한 점수( $ZxZy$ )이다. 이 값이 클수록 남자와 여자를 다원준거가치에서 변별하는 것이며, 이 값이 적을수록 단일준거가치에서 변별하는 것이다.

**실험해명**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 끝나면 실험이 끝났음을 알려 주고, 본래의 실험목적과 독립변인처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위장했던 실험절차들을 설명, 사과하였다.

**결 과**

**독립변인 처치 검증**

실험의 최종단계에서 피험자들은 사후 질문지를 통해 8명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념적 표상(한 집단, 두집단, 개인들의 집합)을 가졌는지를 각각 평정하게 하였다. 각 처치조건별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구성원들이 두 집단으로 표상하는 정도는 범주화 처치조건에서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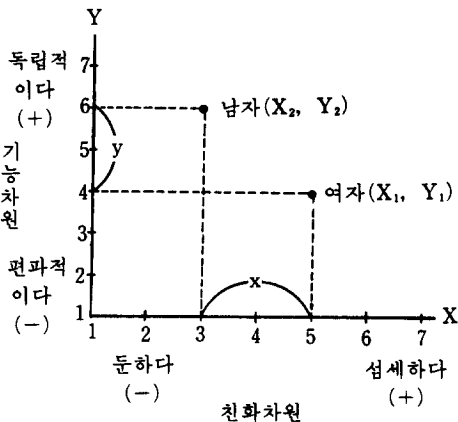


그림 2. 남녀집단 구성원에 대한 인상평가의 준거가치 차원

표 1. 처치조건별 구성원들의 집단표상 확신도(SD)

처치조건	집 단 표 상		
	두 집단	개 인	한 집단
범주화(n=56)	5.46(1.41)	2.77(1.57)	2.95(1.57)
탈범주화(n=56)	4.34(1.79)	4.18(1.81)	2.89(1.42)
재범주화(n=56)	4.11(1.49)	3.89(1.75)	4.23(1.48)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F(2, 162)=12.09, p<.001$ ), 개인으로 표상하는 정도는 탈범주화 처치조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F(2, 162)=10.58, p<.001$ ). 그리고 한 집단으로 표상하는 정도는 재범주화 처치조건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 $F(2, 162)=14.36, p<.001$ ). 따라서 본 실험에서 의도했던 독립변인 처치가 효과적이었음이 밝혀졌다.

### 남여 구성원에 대한 태도 및 내집단 편애

남여집단 구성원에 대한 태도와 내집단 편애량이 처치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표 2를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남여에 대한 태도는 점수가 클수록 호의적인 것이며, 내집단 편애량도 점수가 클수록 편애하는 것이다.

표 2. 처치조건별 남여 구성원에 대한 태도 및 내집단 편애량(SD)

처치조건	남자태도	여자태도	내집단 편애량
범주화			
남(n=27)	6.01(.78)	4.66(1.18)	1.46(.97)
여(n=28)	4.28(.82)	6.22(.69)	1.95(.98)
탈범주화			
남(n=27)	5.48(.71)	4.74(.61)	.78(.64)
여(n=28)	4.41(.87)	5.29(.88)	1.03(.91)
재범주화			
남(n=25)	5.52(.89)	5.05(.78)	.55(.60)
여(n=26)	4.52(.82)	5.13(.79)	.86(.70)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여 구성원에 대한 태도에서 범주화조건이 탈범주화나 재범주화조건에 비해 내집단에 대한 태도는 더 호의적으로, 그리고 외집단에 대한 태도는 더 비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범주화처치는 내집단에 대해서는 호감을, 그리고 외집단에 대해서는 반감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처치조건과 성별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남여 태도

를 피험자내 변인으로 하여 3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3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와 이를 통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 $F(1, 162)=22.75, p<.001$ ).

남여 구성원에 대한 태도에서의 이같은 결과는 내집단 편애량에 대한 분석에서도 뒷받침된다. 처치조건별 내집단 편애량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범주화 조건=1.71, 탈범주화 조건=.90, 재범주화 조건=.71) 이들간의 차이 검증한 결과,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 $F(2, 158)=21.82, p<.001$ ). 개별 평균들간의 차이가 얼마나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 두집단으로 나누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범주화조건과 재범주화조건 ( $F(1, 104)=36.48, p<.001$ ), 범주화조건과 탈범주화조건; ( $F(1, 108)=21.87, p<.001$ ) 간의 평균이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탈범주화와 재범주화 조건간의 평균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 $F(1, 104)=1.93, p<.17$ ). 내집단 편애 정도는 탈범주화나 재범주화조건에서보다 범주화조건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 앞의 예언을 지지하였다.

### 준거차원 변별값과 준거가치 다원성

준거차원 변별값은 남자와 여자집단 구성원에 대한 인상이 기능과 친화 중 어떤 가치차원에 입각해서 판단되었는가를 알아보는 지표이다. 처치조건별로 준거차원 변별값을 산출한 값은 표 3과 같다.

표 3. 처치조건별 기능과 친화준거차원 변별값(SD)

처치조건	기능준거 차원변별값	친화준거 차원변별값
범주화		
남(N=27)	.57(1.03)	-.07(.92)
여(N=28)	-.42(.72)	1.09(.96)
탈범주화		
남(n=26)	.35(.75)	.37(.76)
여(n=28)	-.23(.98)	.46(1.06)
재범주화		
남(n=25)	.74(.86)	.16(.80)
여(n=25)	.34(.84)	.32(.87)

전반적으로 볼 때 남자는 기능차원에서 남자와 여자 구성원을 변별하는 반면에 여자는 친화차원에서 변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능차원에서의 변별값은 여자보다 남자가 높았으며, 친화차원에서의 변별값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게 나왔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처치조



건과 성별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준거차원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하는 3원변량분석에서 성별과 준거차원의 2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와 ( $F(1, 162) = 66.77, p < .001$ ) 위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이 분석에서 처치조건×성별×준거차원의 3원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게 나왔다 ( $F(2, 162) = 13.19, p < .001$ ).

이 결과는 남자는 기능가치에 준거해서, 그리고 여자는 친화가치에 준거해서 인상을 판단하는 경향이 범주화조건에서는 가장 잘 나타나지만, 탈범주화와 재범주화 조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범주화 조건에서는 단일 가치차원에 준거해서 남여 구성원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지만, 탈범주화나 재범주화 조건에서는 다원준거가치에서 인상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다음에 제시될 준거가치 다원성 분석에서 잘 드러난다.

표 4는 피험자들의 준거가치 다원성을 분석한 것이다. 준거가치 다원성은 사람들이 세상을 얼마나 다양한 가치에 입각해서 바라보는가의 정도를 지표화한 것이다. 남여 구성원에 대해서 기능과 친화의 두 가치 중 어느 하나의 가치에 의해서만 판단할 때 단일준거가치 집단으로, 두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판단할 때 다원준거가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여기서 이 두 집단의 구분은 표 3에 나타난 기능과 친화준거차원 변별값을 각각 z점수로 환적한 후 이를 교적하여 구하였다. 이 값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점수가 큰 집단을 다원준거집단으로, 점수가 작은 집단을 단일준거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는 처치조건별로 두 준거집단에 해당되는 사례수와 백분율(%)를 함께 제시한 것이다.

표 4. 처치조건별 다원과 단일준거집단의 교차분할표(%)

처치조건	다원준거집단	단일준거집단
범주화(n=55)	19(34.5)	36(65.5)
탈범주화(n=54)	32(31.5)	22(40.7)
재범주화(n=50)	32(34.0)	18(36.0)
전체(n=159)	83(52.2)	76(47.8)

범주화조건에서는 다원준거를 갖는 사람보다 단일준거를 갖는 사람의 수가 많은 반면에 탈범주화와 재범주화조건에서는 다원준거를 갖는 사람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치조건에 따라 다원과 단일준거집단의 차이를  $\chi^2$  검증한 결과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 $\chi^2 = 10.74, df = 2, P < .01$ ). 이 결과는 범주화

조건 보다 탈범주화나 재범주화조건에서 준거가치 다원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 준거가치와 태도의 관계

앞에서 남여 구성원에 대한 태도가 준거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예언하였다. 표 5에서 이와 같은 준거가치와 태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처치조건별로 준거차원 변별값(표 3)과 남여에 대한 태도(표 2)와의 상관관을 구하였다. 표 5에서 보면 준거가치와 태도의 상관관계가 처치조건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5. 처치조건별 태도와 준거가치와의 상관관계

	남자태도	여자태도	기능가치	친화가치
범주화				
남자태도	-	-.31**	.61**	-.66**
여자태도		-	-.45**	.48**
기능가치			-	-.40**
친화가치				-
탈범주화				
남자태도	-	.06	.39**	.06
여자태도		-	.00	.31**
기능가치			-	.50**
친화가치				-
재범주화				
남자태도	-	.44**	.31**	-.13
여자태도			-.11	-.06
기능가치			-	.35**
친화가치				-

\*\*  $p < .001$  \*  $p < .01$

먼저 범주화조건에서는 남자태도와 여자태도가 역상관( $r = -.31$ )이 있지만, 탈범주화와 재범주화조건에서는 상관이 없거나 정상관이 있었다. 다음으로 범주화조건에서는 기능가치가 남자태도와는 정상관( $r = .61$ )이, 그리고 여자태도와는 역상관( $r = -.45$ )이 있는 반면에, 친화가치는 남자태도와는 역상관( $r = -.66$ )이, 그리고 여자태도와는 정상관( $r = .48$ )이 있었다. 그러나 탈범주화조건에서는 기능가치가 남자태도와는 정상관이( $r = .39$ ) 있지만, 여자태도와는 상관이 없었다. 반면에 친화가치는 여자태도와는 상관이 있지만( $r = .31$ ) 남자태도와는 상관이 없었다. 재범주화조건에서도 탈범주화조건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 상관관계로부터 두가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남여 구성원에 대한 태도가 준거가치에 의해

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기능가치에 준거하면 남자에 대해서 호의적(정상관)이지만, 여자에 대해서는 비호의적(역상관)인 태도를 갖게 되며, 이와 반대로 친화가치에 준거하게 되면 여자에 대해서 호의적(정상관)이지만, 남자에 대해서는 비호의적(역상관)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를 남성들은 기능차원 변별값이 크며, 여성들은 친화차원 변별값이 크다는 표 3의 결과와 연관시켜 보면 성범주화에서 내집단 편에 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둘째, 처치조건에 따라 피험자들의 태도 구조가 달라 나타나고 있다. 범주화 조건에서는 피험자들이 기능가치와 친화가치 중 어느 하나의 가치에 준거해서 태도가 형성되고 있다. 남자에 대한 태도와 여자에 대한 태도, 두 태도가 하나의 준거가치에서 결정된다. 기능가치에 준거할 때는 남자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면 여자에 대해서는 비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 친화가치에 준거할 때는 이와 반대 태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내집단 편에 가 나타나게 된다.

반면에 탈범주화나 재범주화 조건에서는 피험자들이 남자에 대한 태도와 여자에 대한 태도를 서로 다른 준거에 의해 형성하고 있다. 남자에 대한 태도는 기능가치에 준거해서 형성하는 반면에 여자에 대한 태도는 친화가치에 준거해서 형성하고 있다. 표에서 나타났듯이 남자태도는 기능가치에서만 상관이 있으며( $r=.39$ ), 친화가치와는 상관이 없었다. 반면에 여자태도는 친화가치에서만 상관이 있으며( $r=.31$ ), 기능가치와는 상관이 없었다. 이렇게 두 태도가 서로 다른 준거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비교의 산물인 내집단 편에 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내집단 편에는 기능과 친화의 두 가치 중에서 어느 하나의 가치에 준거해서 남자에 대한 태도와 여자에 대한 태도를 동시에 형성할 때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내집단 편에는 두 태도가 동일한 가치에 준거해서 결정될 때 유발된다.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태도를 기능과 친화의 두 가치 중 어느 하나의 가치에 편향해서 형성하는가(단일준거집단) 또는 두 가치에 준거해서 형성하는가(다원준거집단)을 나타내는 지표인 준거가치 다원성은 내집단 편애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 6에서는 피험자들의 준거가치 다원성을 단일준거집단과 다원준거집단으로 구분하여 이 두 집단에서의 태도와 준거가치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여

기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단일준거집단에서는 기능 또는 친화 중 한가지 가치에 입각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두 태도를 동시에 결정하는 반면에, 다원준거집단에서는 남자에 대한 태도와 여자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른 준거가치 즉, 전자는 기능가치에서 그리고 후자는 친화가치에서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표에서 예상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6. 준거가치다원성 수준별 태도와 준거가치의 상관관계

	남자태도	여자태도	기능가치	친화가치
다원준거집단				
남자태도	-	.16	.29*	-.07
여자태도		-	-.01	.14
기능가치			-	.66**
친화가치				-
단일준거집단				
남자태도	-	-.21*	.60**	-.58**
여자태도		-	-.49**	.53**
기능가치			-	-.68**
친화가치				-

\*\*  $p < .001$  \*  $p < .01$

단일준거집단에서는 기능과 친화의 두 준거가치가 각각 남자에 대한 태도와 여자에 대한 태도를 동시에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원준거집단에서는 기능가치는 남자에 대한 태도에서만 상관이 있으며, 친화가치는 여자에 대한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다원화된 준거가치를 가진 사람일수록 남자에 대한 태도와 여자에 대한 태도를 서로 다른 준거가치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 준거가치 다원성과 내집단 편애

위의 결과에서 단일준거집단은 기능 또는 친화의 두 가치 중 어느 하나의 가치에 편향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두 태도를 결정하는 반면에, 다원준거집단은 두 태도를 서로 다른 준거에 입각해서 결정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내집단 편에는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이와 같이 하나의 준거가치에 편향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표 7에서는 이 예언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표에서는 피험자들을 다원준거집단과 단일준거집단으로 나누어 남자와 여자에 대한 태도와 내집단 편애

표 7. 준거가치다원성 수준별

남여 구성원에 대한 태도와 내집단 편애(SD)

	남자태도	여자태도	내집단편애
다원준거집단			
남(n=42)	5.65( .88)	4.91(1.01)	.83( .84)
여(n=41)	4.35( .81)	5.35( .86)	1.15( .88)
단일준거집단			
남(n=36)	5.72( .77)	4.68( .78)	1.09( .84)
여(n=40)	4.41( .88)	5.73( .97)	1.44(1.10)

를 집단별로 제시하였다.

예상했던대로 남여 구성원에 대한 태도에서 단일준거 집단이 다원준거집단보다 내집단 편애가 더 크게 나타났다. 내집단에 대한 태도는 더 호의적으로, 그리고 외 집단에 대한 태도는 비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과 성별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남여 태도를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하여 3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3원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경향이 있었다 ( $F(1, 155)=3.11, p<.08$ ).

남여 구성원에 대한 태도에서의 이와같은 결과는 내집단 편애량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단일준거집단이 다원준거집단 보다 내집단 편애량이 더 크게 나타났다(다원준거집단 평균=.99, 단일준거집단 평균=1.28). 이를 차이검증한 결과 두 집단간에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 157)=3.82, p<.05$ ). 이렇게 볼 때 피험자들의 준거가치 다원성은 내집단 편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험자들의 준거가치다원성과 내집단 편애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보기 위해 준거가치 다원성과 내집단 편애와의 상관관계를 전체 피험자(n=168)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준거가치 다원성과 내집단 편애 간에는 유의미한 역상관이 나와 준거가치 다원성이 클수록 내집단 편애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r=-.31, p<.001$ ).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 편애가 내집단에서 선호하는 가치를 판단준거로 삼아 내외집단을 판단하기 때문에 유발된다고 가정하였다. 즉 내집단에서 선호하는 편향된 가치에 준거해서 내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내집단 편애가 유발된다고 보았다.

연구의 중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남성집단과 여성

집단에서 타인에 대해 인상을 형성할 때 중요시하는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남성집단에서는 성격특성 중에서 기능특성에 준거해서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반면에, 여성집단에서는 친화특성에 준거해서 인상을 형성하고 있다. 남자는 기능특성을 중시하고, 여자는 친화특성을 중시한다는 이와같은 결과는 정진경(1987)의 연구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둘째, 남여에 대한 인상은 인상을 형성하는 준거특성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졌다. 기능특성에 준거할 때는 남자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여자에 대해 비호의적인 태도를 갖는다. 이와 반대로 친화특성에 준거할 때는 여자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남자에 대해 비호의적인 태도를 갖는다. 그런데 위에서 밝혀진 것처럼 기능특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대개 남자이며, 친화특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대개 여자이다. 따라서 남자들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싫어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여자들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를 싫어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기가 속한 집단을 선호하는 내집단 편애가 유발되었다.

셋째, 이와 같은 내집단 편애가 처치조건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탈범주화조건이나 재범주화조건에서는 내집단 편애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범주화조건에서는 내집단 편애가 나타났다. 이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처치 조건에 따라 준거특성과 태도의 상관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범주화조건에서는 남자에 대한 태도와 여자에 대한 태도가 역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두 태도가 역상관이 나오게 된 이유가 사람들이 이 두 태도를 기능특성과 친화특성 중 어느 하나의 특성에 준거해서 형성하기 때문이었음이 드러났다. 기능특성은 남자 태도와는 정상관이 있으며 여자태도와는 역상관이 있는 반면에, 친화특성은 이와 반대로 상관이 나왔다. 이렇게 남자 태도와 여자 태도를 동일한 하나의 특성에 준거해서 형성하기 때문에 두 태도가 양극적으로 대립하게 되어 역상관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특성에 준거한다는 것은 기능과 친화 중 어느 하나의 특성에 준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능특성이나 친화특성은 모두 "나쁘다-좋다"의 평가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특성은 연약하다-강인하다 등의 평가차원으로 되어 있으며, 친화특성은 냉정하다-다정하다 등의 평가차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차원상에서 남자와 여자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한쪽이 '좋다'면 다른 쪽은 '나쁘다'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여 남자태도와 여자태도가 서로 양극적으로 대립되어 역상관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탈범주화와 재범주화조건에서는 남자 태도와 여자 태도가 역상관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상관이 나오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이 두 조건에서는 남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준거와 여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준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 두 태도를 형성하는 준거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두 태도간에 상관이 나오지 않았다. 사실 연구결과에서 기능특성은 남자태도와는 상관이 있지만 여자태도와는 상관이 없었으며, 반면에 친화특성은 여자태도와는 상관이 있지만 남자태도와는 상관이 없게 나왔다. 이렇게 볼 때 내집단 편애는 사람들이 기능과 친화의 두 가치 중 어느 한 가치에 편향되어 남자 태도와 여자 태도를 결정할 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내집단 편애가 일어나는 원인은 사람들이 외집단에서 선호하는 가치보다 내집단에서 선호하는 가치에 준거해서 내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내집단에서 선호하는 가치에 편향되어 그 가치를 준거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집단 편애가 유발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개인의 태도가 그가 갖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은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뒷받침되었다. Kerlinger(1967)는 교육에 대해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서로 대립할 때 그들의 태도형성의 준거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보수주의자는 지식도야와 인격함양과 같은 가치를 준거로 삼고 있는 반면에 진보주의자는 아동흥미나 사회적응과 같은 가치를 준거로 삼아 교육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밝혔다. 여기서 보수주의자의 준거는 진보주의자에게는 준거가 되지 못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그는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다고 결론지었다.

최근에 Katz, Hass 및 Wachenhut(1986)도 흑인에 대한 태도가 '청교도 윤리'와 '박애주의' 중 어느 가치에 준거해서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백인들이 흑인을 청교도 윤리에 준거해서 판단할 때는 흑인에 대해서 비호의적인 태도를 갖지만, 박애주의 정신에 준거해서 판단할 때는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흑인에 대한 태도가 어떤 가치에서 형성되었는가에 따라서 달라

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렇게 볼 때 개인의 태도는 그가 갖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그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사회적 범주화에서 상호규정관계에 있는 범주들은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성범주에서도 남자집단은 기능가치를 선호하는 반면에 여자집단은 친화가치를 선호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집단에 동일시한다는 것에는 그 집단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자신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실은 Tajfel(1981)이 개인의 자아정체를 개인적 정체와 사회적 정체 두가지 정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서 사회적 정체는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을 뜻한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을 어떤 집단에 동일시한다는 것은 그 집단을 자신의 자아정체의 일부로서 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기가 동일시한 집단이 자신의 자아가 되기 때문에 집단의 가치가 곧 자기의 가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이 가치가 세상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자기의 '인식의 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인식의 틀로서의 '자신의 가치' 정확히 말하면 '집단의 가치'는 인식과정에서 의식되지 않는다. 세상을 인식할 때 인식의 주체로서의 '자기'는 항상 '인식의 틀'이 된다. 자기가 도구가 되어 세상이 인식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식과정에서 인식의 틀로서의 '자기'는 직접 의식되지 않는다. 인식의 틀인 '자기'가 자기를 인식할 수는 없다. 마치 '눈'이 자기 '눈'을 못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식의 대상은 항상 자기 밖의 세상이 된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인식이 '절대화'된다. 세상을 인식할 때 자기가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실재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다(이수원, 1993).

이처럼 범주화 조건에서의 피험자들도 '자기의 가치'로 탈바꿈된 '내집단의 가치'에 준거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된 태도를 '절대화'하게 된다. 즉 "남자는 좋고 여자는 나쁘다" 또는 "여자는 좋고 남자는 나쁘다"는 것이 실재하는 것으로 '절대화'해서 지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 즉, '내집단 가치'에 준거했기 때문에 얻어진 상대적인 것임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준거가 바뀌게 되면 태도도 바뀐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내집단은 절대적으로 '좋고' 외집단은 절대적으로 '나쁘다'와 같은 내집단 편애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상에서 내집단 편애가 내집단에서 지향하는 가치에 준거해서 내외집단을 판단하기 때문에 유발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내외집단을 판단하는 준거가치가 '내집단 가치'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빗어지는 현상으로 이해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집단 편애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그동안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들 이론중에서 현재 가장 강력한 이론은 사회적 정체이론(Tajfel과 Turner, 1986)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정체이론에서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자존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가 내집단 편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내집단과 외집단의 비교과정에서 내집단을 선호하고 외집단을 배척하므로써 내집단과 동일시된 자신의 자존감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내집단 편애가 유발된다고 보았다. 즉, 내집단을 선호하고 외집단을 배척하는 것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적 추론의 결과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 설명은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서로 상치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 편애의 원인을 '준거가치에서의 편향'으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적 정체이론에서는 자존감을 고양하고자 하는 동기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 편애의 원인을 준거가치 편향이라는 인지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반면에 사회적 정체이론에서는 자존감의 고양이라는 동기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설명 중 어느 것이 보다 타당한 것인가? 이 물음은 후백 논리로 답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런지 모른다. 두가지 설명이 모두 내집단 편애의 원인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Tajfel(1970)의 최소집단 패러다임 실험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 실험 패러다임은 내외집단의 구분을 화면에 비친 점들의 갯수를 얼마나 크게 추정하는가에 따라 두 집단을 나눔으로써 두 집단간에 '최소한의 차별'만을 준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최소한의 차별'을 통한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에서도 내집단 편애현상이 나타났다. 피험자들에게 보상행렬이 적힌 책자를 나누어 주고 점수를 매기게 한 결과 외집단 구성원보다 내집단 구성원에게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내외집단을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 없이 단지 화면에 비친 점들의 갯수 지각이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의 전부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정하

것과 같이 내집단과 외집단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를 수가 없다. 이러한 최소집단 패러다임에서는 두 집단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집단 편애가 나타났다는 것은 내집단 편애가 준거가치의 차이에서 빗어진다는 본 연구의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이렇게 볼 때 내집단 편애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내외집단간의 준거가치의 차이에서만 빗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정체이론에서 가정하듯 개인적 자존감을 고양시키기 위한 동기에 의해서 내집단 편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최소집단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내집단 편애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다.

본 연구는 여러가지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준거가치 선호와 내집단 편애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기 때문에 준거가치 선호에 의해 내집단 편애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내집단 편애에 의해 준거가치 선호가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내집단 편애가 준거가치 선호 때문이라고 인과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준거가치 선호와 내집단 편애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 내집단 편애의 원인으로 가정하 준거가치 선호는 다양한 내집단 편애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최소집단 패러다임과 같이 단순히 두 집단을 구분하므로써 발생하는 내집단 편애현상은 특정한 준거가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정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본 연구의 가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 참 고 문 헌

- 이수원(1993).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갈등과 사회발전. 한국심리학회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움, 92-142.
- 이수원(1993). 사회적 갈등의 인지적 기제: 사회적 자이중심성. 한국심리학회지:사회, 7권, 2호, 1-23.
- 이수원·박영석(1988). 평가차원에서 기술차원으로: 태도의 변형생성과정. 사회심리연구, 4권, 1호, 155-182.

- 이수원·이영훈(1989). 태도의 편역기제 : 양극성에서 이원성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8권, 1호, 67-87.
- 정진경(1987). 성역할 연구의 양성적 시각. *한국 여성학*, 3권, 132-160.
- Abrams, D., & Hogg, M.A. (1988). Comments on the motivational status of self-esteem in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discrimin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317-338.
- Brewer, M.B. (1979). In group bias in the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86, 307-324.
- Brown, J.D., Collins, R.L., & Schmidt, G.W. (1988). Self-esteem and direct vs. indirect forms of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445-453.
- Crocker, J., & Luhtanen, R. (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0-67.
- Doise, W. (1978). *Groups and Individuals: Explanation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Gaertner, S.L., Mann, J., Murrell, A., & Dovidio, J.F. (1989). Reducing intergroup bias: The benefits of re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239-249.
- Gerard, H.B., & Hoyt, M.F. (1974). Distinctiveness of social categorization and attitude toward ingroup me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836-842.
- Howard, J.W., & Rothbart, M. (1980). Social categorization and memory for ingroup and outgroup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301-310.
- Katz, I., Hass, R.G., & Wachenhut, J. (1986). Racial ambivalence, value duality, and behavior. In J. Dovidio & S.L. Gaertner (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New York: Academic Press.
- Kerlinger, F.N. (1967). Social attitudes and their criterial referents: A Structural Theory. *Psychological review*, 74, 110-122.
- Lemyre, L., & Smith, P.M. (1985). Intergroup discrimination and self-esteem in the minimal group paradig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660-670.
- Mullen, B. (1987). Self-attention theory: The effects of group composition on the individual. In Mullen, B. & Goethals, G.R. (Eds), *Theories of Group Behavior*. Springer-Verlag, New York.
- Mullen, B., Brown, R., & Smith, C. (1992). Ingroup bias as a function of salience, relevance, and status: An integr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103-122.
- Pettigrew, T.F. (1979). The ultimate attribution error: Extending Allport's cognitive analysis of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61-476.
- Schaller, M. & Maass, A. (1989). Illusory correlation and social categorization: Toward an integration of motivational and cognitive factors in stereotype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709-711.
- Skevington, S. (1980). Intergroup relations and social change within a nursing context.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201-213.
- Sumner, W.G. (1906). *Folkways*, Ginn, New York.
- Tajfel, H. (1969). Cognitive aspects of prejudice. *Journal of Social Issues*, 25, 79-97.
- Tajfel, H. (1970).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Scientific American*, 223(5), 96-102.
-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0.
- Tajfel, H., & Turner, J.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ur. In S. Worchel & W.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Chicago: Nelson-Hall.
- Taylor, D.M., & Jaeggi, V. (1974). Ethnocentrism and causal attribution in a south Indian contex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 162-171.
- Tetlock, P.E. (1989). Structure and function in political brief systems. In A.R. Pratkanis, S.J. Brecker, & A.G. Greenward (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pp.129-151). Hillsdale, NJ: Erlbaum.
- Wilder, D.A. (1986). Social categorization: Implications for creation and reduction of intergroup bias. In L Berkowitz.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Orlando, FL: Academic Press.
- Wills, T.A. (1981). Downward comparison principle in social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90, 245-271.

## **Social Categorization, Value Preference and Ingroup Favoritism**

**Hae-Gyoung Lee and Soo-Won Lee**

Department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intended to find out the source of an ingroup favoritism in social categorization. It is hypothesized that the ingroup favoritism occurs because individuals evaluate both the ingroup and outgroup with the criteria of the ingroup values. In order to examine this hypothesis, subjects were allocated to three groups and given a treatment of categorization, decategorization and recategorization respectively. The categorization condition was created by making sexual identity salient. Subjects were manipulated to identify themselves with sexual categories. In this condition, the ingroup favoritism was expected to increase as the individuals judge both the ingroup and outgroup by the criteria of ingroup values. In contrast, the recategorization condition in which the boundary of male and female categories were reset into one-group and the decategorization condition in which the boundary of categories were eliminated are expected to decrease the ingroup favoritism. These hypothesis were confirmed by the given experimental data.